

모든 일들이 형통하게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입을 모아서 “오벰에돔이 언약궤로 말미암아 복을 받았다”고 인정할 수 밖에 없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비나답의 집에서는 언약궤가 70년이 넘게 있었는데, 성경에는 아비나답의 집이 언약궤로 말미암아 복을 받았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오히려 아비나답의 아들인 웃사가 언약궤로 인하여 죽임을 당했으니, 아비나답은 언약궤로 인하여 재앙을 받게 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언약궤로 인해 복을 받은 오벰에돔과 재앙을 받은 아비나답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오벰에돔의 집에 언약궤가 처음 안치되었을 때에, 오벰에돔은 무척 긴장했을 것입니다. 바로 직전에 제사장 웃사가 죽임을 당하기까지 했으니, 오벰에돔은 자신의 집에도 그런 재앙이 미치는 게 아닌가 싶어서 크게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벰에돔은 언약궤 앞에서 하나님을 지극히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조심스럽게 향을 사르고 등을 밝혔을 것입니다. 이렇듯 오벰에돔이 언약궤 앞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한 것은, 언약궤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즉 오벰에돔이 가진 두려움은 “하나님이 이 곳에 계신다”는 임재의식으로 말미암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비나답은 어땠습니까? 그의 아들인 웃사가 언약궤를 붙잡은 것을 보십시오. 만약에 아비나답이 평소에 언약궤를 지극히 두려워하고, 언약궤 앞에서 자신의 행동을 절제하는 모습을 보여왔다면, 웃사도 마찬가지로 언약궤를 두려워했을 것입니다. 그랬다면 웃사는 아무리 긴박한 상황이라 하더라도 절대로 언약궤에 함부로 손을 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웃사가 언약궤를 붙잡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아비나답은 평소에 언약궤를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아비나답과 그의 아들들은 언약궤 앞에서 하나님을 섬길 때에,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신다는 것을 전혀 인식하지 않았고, 그저 형식적으로만 수고해 왔던 것입니다. 오벰에돔과 아비나답의 차이점은 이렇듯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인식의 유무에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아비나답이 임재의식이 결여된 채로 70년간 수고한 것보다도, 오벰에돔이 하나님 임재의식에 사로잡혀서 단 석달간 수고한 것을 더욱 귀중하게 여기셨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절대로 아비나답이 되지 말고, 오벰에돔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대상 13:14) “**하나님의 궤가 오벰에돔의 집에서 그 권속과 함께 석달을 있으니라 여호와께서 오벰에돔의 집과 그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 여러분은 언제나 하나님 임재의식을 철저히 가짐으로써, 하나님께서 오벰에돔에게 허락하신 모든 복을 온전히 누리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정이 오벰에돔의 가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설날 가정예배

2024. 2. 9 ~ 12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이사야 43:19)



설날 가정예배 순서

입례 **사회자**

“설날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신앙고백 **사도신경** **다 같이**

“다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을 하시겠습니다.”

찬송 (340장/새 542장) **다 같이**

대표기도 **말은 이**

(가족 중 한 명이 담당하고, 마땅치 않으면 사회자가 담당)

성경봉독 (역대상 13장 14절) **다 같이**

14 하나님의 궤가 오벰에돔의 집에서 그 권속과 함께 석달을 있으니라 여호와께서 오벰에돔의 집과 그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

설교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사회자**

찬송 (427장/새 191장) **다 같이**

기도 **다 같이**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한 후, 사회자의 기도로 마무리)

주기도문 **다 같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설교 -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설 명절을 맞이해서 가정예배에 함께하시는 모든 가족분들께,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히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주전 1075년 경에, 이스라엘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언약궤를 빼앗긴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여곡절 끝에 7달만에 언약궤는 이스라엘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물이기 때문에 절대로 언약궤를 만지거나 열어 보아서는 안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망각하고 언약궤가 돌아왔다는 사실에 상기되어서 언약궤를 열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언약궤를 들여다본 백성 70명을 죽이셨습니다. 이에 백성들은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두려워하면서, 언약궤를 성막으로 옮길 엄두를 내질 못하고, 근처에 있는 제사장 아비나답의 집에 언약궤를 안치했습니다.

아비나답은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능숙했습니다. 그래서 아비나답과 그의 아들들은 아마도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과 유사하게, 언약궤 앞에서 향을 사르고 등을 밝히는 등의 수고를 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7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다윗은 언약궤를 이스라엘의 수도인 예루살렘으로 옮기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언약궤를 소가 끄는 수레에 싣게 했습니다. 언약궤에는 막대가 꺾어져 있었고 언약궤를 옮길 때에는 반드시 4명의 고hat 자손이 막대를 어깨에 짊어진 채로 옮겨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이러한 율법에 무지했던 것입니다.

아비나답의 아들인 웃사가 수레 곁에서 언약궤를 호위하면서 행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소가 펄쩍 뛰는 바람에, 수레가 크게 요동하면서 언약궤가 떨어질 것만 같았습니다. 그래서 곁에 있던 웃사는 황급히 손을 내밀어서 언약궤를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하나님께서 웃사를 죽이셨습니다. 백성들은 그것을 보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더 이상 언약궤를 옮길 엄두를 내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근처에 있는 오벰에돔의 집에 언약궤를 안치했습니다. 그런데 오벰에돔은 제사장이 아니고 일반 레위인이었습니다. 오벰에돔은 제사장이 아니다 보니, 성소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벰에돔은 아마도 아비나답에게 자문을 구했을 것이고, 아비나답이 그동안 언약궤 앞에서 하였던 모든 수고를 똑같이 따라서 하고자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대상 13:14) “**하나님의 궤가 오벰에돔의 집에서 그 권속과 함께 석달을 있으니라 여호와께서 오벰에돔의 집과 그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고 했습니다. 언약궤가 오벰에돔의 집에 단지 석달만 있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는 오벰에돔의 집에 큰 복을 내려 주셨습니다. 오벰에돔의 가정은 평안해지고, 질병이 나음을 받고, 물질이 풍부해지고, 자손을 얻게 되고, 바라던